

광주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첫 센터장 김정미 씨



## 고충상담·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서비스

## '장애인의 날' 반짝 관심보다 지속적 성원 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런 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등 눈에 보이는 곳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교육과 제도 등 내적·질적 서비스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최근 개소식을 가진 '광주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김정미(37) 센터장은 이렇게 밝히며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삶을 이룰 수 있게 광주지역 3만여명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멘토(mentor)가 되겠다"고 말했다.

'광주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여성장애인의 고충상담, 취업준비 프로그램·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등 경제활동 프로그램, 건강의료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화나 방문 상담 뿐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특히 과거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여거나 건강·의료에 치우친 데 반해 어울림센터는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사회활동을 꺼려하던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려는 여성장애인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많지만 위험 문이 좁은 터에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장애인이 많아 안타깝다"며 "이들의 욕구에 맞게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더욱 늘려 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에게 제 30회 장애인의 날인 20일은 의미가 남다르다.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생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특히 여성장애인은 더욱 그렇죠. 장애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입니다."

광주지역 3만여명의 여성장애인 중 60세 이상이 절반인 1만6천여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주위 시선을 불편해하며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들을 밖으로 이끌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아요. 따뜻한 관심과 배려면 됩니다."

김 센터장은 광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늦깎이로 보건대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광산구장애인복지관과 앤마우스복지관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해 왔다.

김 센터장은 "남녀노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글 사진=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강진군민 상 노혜례나·유홍규·오경배씨



노혜례나씨 유홍규씨 오경배씨

물 생산에 힘써 왔다

이번 군민의상 시상은 오는 30일 강진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38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에서 이뤄진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 영 캐임브리지대 첫 한국인 형제교수 탄생

## 광주 출신 장재식 전 산자부장관 아들 하준·하석씨



세계적 명문인 영국 캐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형제가 나란히 교수화 됐다.

최근 캐임브리지대에 따르면 광주출신인 장재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차남인 런던대 과학기술학과 장하석(43) 교수가 캐임브리지대의 한스 라우싱 석좌교수(Hans Rausing Professor)에 최근 임명됐다. 장하석 교수는 '사다리 걸어치기' 등의 저서로 유명한 이대학 경제학과의 장하준(47) 교수의 친동생이다.

지난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난 장하석 교수는 16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칼리포니아공대(Caltech)

에서 이론물리학과 철학을 전공했다. 이후 스텐퍼드대에서 1993년 '양자물리학의 측정과 비틀림성'

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5년 런던대 교수로 임명됐다.

장 교수는 '사다리 걸어치기' 등의 저서로 유명한 이대학 경제학과의 장하준(47) 교수의 친동생이다.

장 교수는 1995년 런던대 교수로 임명됐다.

장 교수는 1995년 런던대 교수로 임명됐다.